

늦부모됨에 관한 탐색적 고찰

An Exploratory Study on Late Parenthood

경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김용미*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yonggi University

Professor : Kim, Yongm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various aspects of late parenthood among Korean parents, including motivation, emotional respons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late parenthood, intimacy, and effects on child. Subjects were 15 mothers who gave birth after 35 years old for both mother and father. The study was conducted by means of a questionnaire and an in-depth interview.

The most significant reason for late parenthood was found to be a son preference. Mothers of the only child expressed very special emotional responses toward the child, compared to those who gave a birth to the second or the third child after 35. Respondents identified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late parenthood in terms of child care attitudes, maturity, financial conditions, and physical strength. However, most of the respondents would not recommend late parenthood to other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given in terms of subjects of study, such as parents from rural area, working class, and wide range of ages.

▲주요어(Key Words) : 늦부모됨(late parenthood), 가족관계(family relations), 친밀감(intimacy)

1. 서론

최근 국내외 통계자료와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출산 연령이 늦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연령별 출산율 자료를 살펴보면 2000년 현재 첫 자녀 출산 시 여성의 평균 연령은 24.9세이다(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01). 지난 30년 동안 일관되게 출산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5~29세 집단이었다. 그런데 1985년 이후 최근 15년 사이 두 번째 출산율이 높은 연령대는 1985년에는 20~24세 집단이었던 것이, 1995년부터는 30~34세 집단으로 뚜렷한 변화를 나타낸다(<표 1>참조). 30~34세 여성의 출산비율이 지난 1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고, 반대로 20~24세 여성은 3배 이상 감소하면서 이 두 집단 사이에 뚜렷한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35~39세 여성의 출산율은 지난 15년 간 꾸준히 증가하여 1985년에 1.6%였다

가 2003년에는 7.3%로 거의 5배 증가했다(통계청, 1979; 1989; 2001; 2004).

미국의 경우에도 1980년 대에 어머니의 연령이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출산한 아이들의 수가 거의 2배 증가했다. 1990년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이 13명 중 하나가 어머니의 연령이 35세 이후에 태어났는데 이 수치는 연간 300,000명에 이른다. 또한 같은 해에 태어난 미국 어린이 6명 중 하나는 아버지의 연령이 35세 이후에 낳은 자녀이다(Yarrow, 1991). 이처럼 1980년 대에 걸쳐 미국에서 일어났던 출산력의 주요 변화는 30대 여성의 초산율이 상당히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980년 대에서 1990년 사이 30~34세 사이에 첫 출산을 경험한 여성은 66% 증가했고 35~39세 여성은 158% 증가했다. 1990년에 30~34세 여성의 첫 출산율은 21.2%로 상승했고 35~39세 여성은 6.7%로 증가했다. 30~34세 여성의 첫 출산율은 1990년 대에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93년에 30~34세 여성의 첫 출산율은 21.7%, 35~39세 여성은 7.1%, 40~44세 여성은

* 주 저 자 : 김용미 (E-mail : ymkym@kyonggi.ac.kr)

<표 1> 어머니의 연령별 출생 구성비 (1970~2003)

(단위: %)

연 도	~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세 이상
1970	3.0	24.0	35.9	22.6	9.9	3.5	1.7
1975	3.4	30.5	37.4	18.4	7.2	2.2	0.9
1980	3.2	32.9	42.0	14.8	3.9	1.9	1.2
1985	3.3	37.4	48.1	9.1	1.6	0.4	0.2
1990	1.4	26.6	54.1	15.4	2.2	0.3	0.1
1995	1.0	19.2	54.2	20.9	4.2	0.5	0.0
2000	0.7	11.7	54.9	29.0	5.9	0.8	0.1
2003	0.8	9.5	44.6	36.5	7.3	1.1	0.1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연보 (1979; 1989; 2001; 2004)

1.2%로 각각 증가했다(Ventura,1993).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구조사에서 남성의 첫자녀 출산연령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전체 출산비율 자료를 보면 첫아버지됨의 연령이 어머니와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에서 1993년 사이에 20~24세, 25~29세 연령대 남성의 총 출산율은 92.0%에서 87.1%로, 123.1%에서 110.8%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30~34세 남성의 총 출산율은 91.0%에서 93.5% 사이로 비교적 안정된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35~54세 연령집단 남성의 총 출산율은 1980년 42.8%에서 1993년 51.1%로 증가함으로써 첫 자녀를 얻는 아버지의 평균 연령도 어머니와 비슷하게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음을 보여준다(Ventura, 1993).

이상과 같이 늦출산의 경향이 서서히 자리 잡게 됨에 따라 인구학, 사회학, 심리학, 가족학, 아동학, 경제학, 의학, 간호학 등의 분야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강희경, 1994; 김용미, 2002; 임은정, 2001; Garrison, Blalock, Zarski, & Merritt, 1997; Heath, 1995; Reece, 1993; Roosa, 1988; Schlesinger & Schlesinger, 1989; Ventura, 1993; Wilkie, 1981; Yarrow, 1991).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먼저 인구학적 요인의 변화로서 출산율의 변화, 결혼의 지연현상, 이혼율의 상승과 무자녀 가족의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둘째로는 피임 기술의 발달과 불임치료의 발달, 산전 관리 및 신생아 간호의 향상, 중년기 임신에 대한 사회적 수용의 증가와 같은 의학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세번째, 경제적 요인으로서 실업과 불황, 실질소득의 감소를 들 수 있다. 넷째로, 인권의식의 상승과 여성운동 등을 포함하는 정치적 요인이 있고, 끝으로 교육수준과 여성취업의 증가, 결혼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다(Garrison et al., 1997; Schlesinger & Schlesinger, 1989).

최근의 이러한 뚜렷한 인구동향에도 불구하고 늦부모됨과 늦출산 가족의 가족 관계에 대한 연구는 외국의 경우에도 시작에

불과하며 국내 연구는 소수의 연구 외에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강희경, 1994; 김용미, 2002; 임은정, 2001). 이 연구에서는 부모 모두 만 35세 이후 출산한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늦부모됨의 동기, 반응, 영향과 가족관계 상의 변화 등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늦부모됨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Reece(1993)의 연구에서는 출산을 35세 이후로 늦춘 여성들을 늦출산 집단으로 분류한 반면 Schlesinger와 Schlesinger(1989)의 연구에서는 30세 이후 출산한 집단을 늦부모 집단으로 나누었다. Frankel과 Wise(1982)는 33세 이후까지 출산을 늦춘 집단을 늦부모 집단으로 간주했으며 Cowan과 Cowan(1992)의 연구에서는 30세 이상의 부모를, Yarrow(1991)의 연구에서는 35세 이상을 늦부모됨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와 같이 늦부모 집단을 분류하는 기준이 연구에 따라 30세, 33세, 35세 등으로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 연구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내 선행연구들도 어머니의 나이 만 35세를 늦둥이 또는 고령출산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 근거로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출산의 범주, 국제산부인과학회의 고령, 고위험 임신의 정의를 들고 있다(강희경, 1994; 김용미, 2002; 임은정, 2001). WHO와 국제산부인과학회의 기준은 보건의학적 관점에서 제시된 연령이지만 일반인의 통념상 만 35세 이후의 출산을 늦출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하는 기준이며 가장 설득력있는 연령 기준으로 판단되어 만 35세 이후 출산한 집단을 늦부모 집단으로 삼았다.

II. 선행연구 고찰

늦부모됨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해보면 크게 나누어서 생애주기 이론의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 개인 및 가족특성을 살펴본

연구, 그리고 남녀 간의 성(性)차에 주목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생애주기 이론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서로 상반된 2가지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전통적 생애주기 이론에 따르면, 각 연령에 적합한 시간의 틀 안에서 각 단계에 기대되는 구체적 발달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좋게 말해서 '미성숙 또는 발달 지체' 라는 호칭이 부여되고 나쁘게 말하면 '역기능적 또는 병리적' 이라 부른다(Erikson, 1968; Levinson, et al., 1976). 이 관점에서 따르면 늦게 부모가 되는 사람들은 20대에 출산하는 부모들에 비해 부모 역할 적응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가정했다(Soloway & Smith, 1987; Walter, 1986). 그러나 이 가정은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최근의 생애주기 이론에 따르면 늦부모됨을 선택한 부부들이 다른 부부에 비해 더욱 만족스럽고 어려움이 적게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왜냐하면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성숙해지므로 오히려 부모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강희경, 1994; Heath, 1995; Roosa, 1988). 그러나 이 관점 역시 후속 연구에 의해 적절하게 지지되지 않고 있다. 늦부모와 정시부모 집단을 결혼 만족도, 양육 스트레스, 가족기능 면에서 비교한 Garrison et al.(1997)의 연구에서 두 집단은 차이점보다 유사점이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늦부모 집단 가운데 아버지보다 어머니 집단이 서로 유사한 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상반되는 두 가지의 관점에 대한 지지가 부족한 원인으로서는 연구대상의 크기가 부적절하거나 표준화된 측정도구의 부족 등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두번째로 개인과 가족특성을 살펴본 연구로서 Frakel과 Wise (1982)의 연구에서는 33세 이후 출산한 전문직 여성과 남성집단을 비교했다. 젊은 부모들에 비해 늦부모 집단이 부모역할에 대해 더욱 수용적이고 갈등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Reece(1993)의 연구에서는 35세 이후 출산한 여성들에게 '부모기로의 전환 위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적절한 사회적 지원체계 덕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Cowan과 Cowan(1992)의 연구는 29세 이하 젊은 부모와 30세 이상 부모를 비교한 결과 젊은 부모들이 출산 후 자아 존중감의 저하, 무능력을 더 많이 보고했다. Schlesinger와 Schlesinger(1989)는 30세 이후로 출산을 늦춘 부모들을 면접한 결과 부모 두 사람 모두 부모역할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하며 출산 후 독립성을 상당 부분 포기했으며 역할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끝으로 늦부모됨과 관련된 남녀 간의 성(性)차에 주목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기로의 전환시점에 남자에 비해 여자의 결혼 만족도가 더욱 감소함을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Belsky, Lang, & Rovine, 1985). Cowan et al.(1985)의 연구에서는 만족도의 감소가 여자에게서 먼저 보고되고 남자는 차후에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시기 양육 스트레스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irchler, 1992). 늦부모 집단을 심층 면접한 Schlesinger와 Schlesinger(1989)의 연구에서 어머

니들이 과로, 행복감, 고립, 우울증에서 아버지보다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 연구 결과를 보면 늦부모됨을 경험한 여자와 남자의 비교 결과 결혼 만족도, 양육 스트레스, 우울증, 과로 등에서 여자가 더욱 민감하고 신속하게 느끼며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의 연구경향 가운데 두번째와 세번째 접근법을 동시에 취하고있다. 늦출산을 경험한 사람들의 개인적, 가족적 특성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으며 심층면담 과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차이점 등을 부분적으로 다룸으로써 성차에 대해서도 부가적인 탐색이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이 최근의 인구동향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늦부모됨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늦출산을 경험한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의 동기, 심정적 반응, 장단점, 부모-자녀관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같이 늦부모됨을 개인적, 가족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늦부모됨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증가하며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III.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늦부모됨의 기준을 부모 둘다 만 35세 이후 출산한 부모 집단으로 간주했다. 연구 대상자는 경기도청 소재지인 S시의 대형 유치원(원아수 300명)과 어린이집(원아수 150명)을 각 1곳 선정하여 조건에 적합한 대상자 파악을 의뢰하였다. 적합한 대상자는 모두 30명으로 파악되었으나 이 가운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어머니는 16명이었다. 이 중 1명은 아버지의 연령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어 최종적으로 15명의 어머니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자료 수집은 설문지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계속되었으며 2003년 7월 2~3째주 사이에 걸쳐 이루어졌다. 설문지의 문항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면접내용은 녹취한 것을 전사하여 내용분석이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징은 <표 2>와 같다.

연구 대상자들은 지역적으로 주로 중산층이 거주하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교육수준도 대부분 고졸 이상 대졸 정도로 비교적 높았다. 자영업에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맞벌이 부부도 다수 있었고 월 평균 수입도 최저 300만원에서 400~500만 사이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응답자의 인구학적 배경, 가족관계, 늦부모됨에 관한 항목(늦출산의 동기, 계획 여부, 양육의 보람과 어려움, 태도, 영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를 완성하는데 10~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또한 질적 자료를 얻기 위해 심층면담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포함된 항목은 Yarrow (1991)가 사용한 면접자료를 기초로 구성되었다. 내용은 부모-자녀 관계, 부모의 양육참여도, 늦부모됨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늦부모됨의 장단점에 관한 항목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2> 조사 대상자의 특성

사례	어머니의 현재 연령*	늦자녀* 성과 연령	출산시* 부모연령	형제 - 자매관계 / 출생순위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	월수입	종교
1	42	여 5세	42-37	외동이	대학원-대졸	사업-주부	-	기독교
2	43	남 5세	35-38	남 15, 남 12 / 세째	대졸-고졸	회사원-주부	300만	-
3	42	남 5세	39-37	여 19, 여 15 / 세째	대졸-고졸	자영업-자영업	500만	불교
4	40	남 5세	36-35	여 14 / 둘째	고졸-고졸	상업-주부	300만	-
5	41	남 4세	37-37	여 14, 여 12 / 세째	대학원-대졸	회사원-학원강사	800만	기독교
6	48	남 5세	54-43	외동이	대졸-대졸	임대업-주부	500만	기독교
7	39	여 5세	35-35	남 11 / 둘째	대졸-대졸	회사원-홈스쿨	500만	-
8	42	남 4세	39-38	여 15, 여 13 / 세째	대졸-고졸	회사원-주부	500만	기독교
9	42	남 4세	38-38	여 13, 여 10 / 세째	대학원-대졸	회사원-주부	400만	천주교
10	44	여 4세	40-40	남 23 / 둘째	대졸-대졸	사업-주부	500만	-
11	42	남 5세	40-37	첫째 / 남 4	대학원-고졸	공무원-공무원	500만	불교
12	42	남 5세	37-37	남 13, 여 11 / 세째	대학원-대졸	평가사-교사	-	천주교
13	40	남 5세	35-35	외동이	고졸-고졸	인쇄업-인쇄업	400만	-
14	39	남 4세	37-36	여 14, 여 10 / 세째	고졸-고졸	상업-상업	-	-
15	43	여 5세	38-38	남 13, 남 8 / 세째	대학원-대졸	약사-약사	-	기독교

* 연령은 모두 만 나이로 답하도록 하였음

IV. 연구 결과와 해석

1. 늦둥이 자녀의 임신계획, 출생 순위와 출산 동기

먼저 이 자녀의 임신이 계획된 것인지에 대해 대다수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아니라고 답한 부모도 소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참조). 여기에서 출산을 하는 부모의 대부분이 원하고 계획해서 늦둥이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

늦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출생 순위와 출산 이유는 <표 4>과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가장 빈도가 높은 출생순서는 세째아이로서(15명 가운데 8명) 대부분이 남아였다(8명 가운데 7명). 왜 늦둥이를 낳게 되었는지 물었을 때 '배우자와 가족이 원해서'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는데 이렇게 답한 사람의 대부

분이 세째 자녀로 남아를 출산한 것으로 밝혀져(8명 가운데 7명)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번째 늦둥이를 출산하는 동기로서 남아선호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번째 이유로 '아들을 낳기 위해'라고 답했는데 이렇게 답한 사람의 대부분 역시(6명 가운데 5명) 세째 자녀로 남아를 출산한 사람들어서 늦둥이 출산 동기로서 남아선호의 동기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늦출산 이유 가운데 하나로서 (유산, 불임 등으로 고생하다가) 외동이가 생겨서 낳게 되었다는 응답이 3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둘째, 세째 자녀를 늦출산한 응답자들과는 매우 대조되는 집단으로 생각된다. 늦출산으로 외동이 자녀를 얻는 부모는 임신에 대한 반응, 자녀와의 관계 등에서 다른 응답자들과 판이하게 다른 정서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 3> 늦둥이 임신 계획여부

계획 여부	빈도 (%)
계획된 임신	12 (80.0)
아니다	3 (20.0)

<표 4> 늦둥이 자녀의 출생 순위

	빈도 (%)	성별	
		남아	여아
외동이	3 (20.0)	2	1
첫째 아이	1 (6.7)	1	0
둘째 아이	3 (20.0)	1	2
세째 아이	8 (53.3)	7	1
계	15 (100.0)	11	4

<표 5> 늦둥이 출산 이유 (복수응답)

이유	빈도
배우자와 가족이 원해서	8
아들을 낳기 위해서	6
아이들을 좋아해서	4
외동이 (유산, 불임 등 경험)	3
결혼이 늦어져서	2

2. “특별한” 아이와 평범한 아이: 부모의 심정적 반응

이 연구에서 설문지와 면접의 과정에서 늦출산에 대해 민감하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외동이 부모들이었다. 숫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늦출산으로 외동이를 얻는 부모들은 아이에 대해 매우 특별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결혼 후 적게는 2년 길게는 13년을 기다린 끝에 자녀를 얻은 부모들이어서 한결같이 임신에 대한 가족과 이웃의 반응이 매우 기쁘고 환영했으며, 자녀를 양육하며 느끼는 어려움도 물론 있지만 보람이 크고 부모-자녀 관계가 매우 친밀하고 부부가 양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늦은 나이에 외동이를 얻은 부모들은 또한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친밀하고 화목해졌으며 자녀의 존재에 대해 ‘매우 특별한 아이, 귀한 자식’이라는 정서와 자부심을 뚜렷하게 나타냈다.

“저는 결혼 13년 만에 뜻밖에 임신을 했어요, 둘다 나이가 많아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희에게 애라는 생명체가 너무 예쁘고 소중한거 같아요. 애가 어느 정도 크고 자라서, 제 주위에 친구들 보면 애가 고등학교에 가고 그래도 굉장히 예쁘고 예를 들어 군대 간다 하면 정말 부모가 대신 가고 싶다 하던데, 오히려 자기 생명을 주고 싶다고 그럴 정도로 정말 예쁘다고 하는거 보면 자식은 그냥 예쁘게 봐요(웃음)....” (5세 외동이 남아를 둔 48세 어머니)

“저희는 오랫동안 애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이 많았어요. 물론 아빠는 애를 원했죠. 마침내 아이를 낳고 보니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라 생각하고, 애를 볼 때마다 너무 예쁘고 우리 딸로 태어나 주어서 고맙다고 늘 생각하죠(울음)....너무 고마워요 우리 애가...”(5세 외동이 여아를 둔 42세 어머니)

이에 비해 둘째나 셋째로 늦출산을 한 부모들은 젊어서 얻은 다른 자녀에 대한 반응, 감정과 유사한 반응을 나타냈다. 셋째 자녀로 늦둥이 아들을 출산한 부모들은 대개의 경우 딸이 들

있는 상태에서 남아를 출산한데 대해 이를 다행으로 여기고 있었으나 외동이 부모처럼 자식에 대한 특별한 정서적 반응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아들 둘을 둔 상태에서 예상치않게 늦둥이 딸을 얻은 어머니의 경우에는 덤덤하면서도 신앙으로 아이를 수용하고 있었다.

“저는 그냥 덤덤해요. 위로 아들이 둘이나 있고 계획된 임신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라 생각하고 감사해요. 늦게 난 자식이라 큰 애들보다 더 예쁘긴 하죠, 또 딸이라 더 그렇기도 하고요.”(아들 둘에 이어 5세 여아를 둔 43세 약사)

“세째를 낳고 저희는 특별한 느낌이나 별로 달라진 건 없고.... 어른들하고는 좀 편해졌어요. 아빠가 외아들인데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되게 원했어요, 그래도 막내를 아들을 낳아서 다행히 할머니 할아버지도 편안해 하시고 좋아요. 위에 딸들한테는 좋은 대학 꼭 가야돼 이리지만 애는 그런거 전혀 없고 그냥 건강하게,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서 사회 나가서 자기 뜻대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죠.”(딸 둘을 둔 후 늦둥이 아들을 둔 48세 어머니)

3. 임신에 대한 주위의 반응과 늦둥이의 장단점

늦둥이의 임신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가족, 이웃의 반응은 대다수가 매우 기쁘고 환영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딸들이 있는 상태에서 늦둥이를 가진 경우에는(5명) 가족과 주위의 기대가 더욱 그러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늦둥이를 키우면서 느낀 어려움도 있으나 보람도 그만큼 큰 것으로 나타났다. 늦둥이를 양육하면서 느낀 보람과 어려움을 1~5점 척도로 물었을 때 대부분 보람과 어려움에 똑같이 높은 점수(5점)를 주었다. 어려움이 1점 보람이 5점이라고 차이를 둔 경우는 1명에 불과했다.

늦부모됨의 장단점을 물었을 때 장점으로 가족관계, 자녀양육 방법과 변화, 경제적 여유, 존재 자체의 소중함 등을 좋은 점으로 꼽았다. 먼저 가족관계가 전반적으로 전에 비해 친밀하

고 화목해졌으며 대화와 웃음이 많아졌다고 한다. 부부관계에는 권태기가 없어졌고 결속력이 증가했으며 배우자가 전보다 가족들에게 성실해졌다. 시부모와의 관계도 편안해졌고 아들이 없을 때 느끼던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고 뒤틀린 느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늦둥이를 보고 나서 식구들이 다복해졌어요. 저희는 늦둥이를 두려고 한게 아니고 첫 아이를 낳고 터울이 길어져서 정말 힘들게 낳았는데 일단 우리가 생각한게 이루어졌으니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더 편해진 것 같아요.”(5세 남아를 둔 43세 어머니)

“저희는 일단 밝고 집안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항상 웃을 수 있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누나들도 그래요. 큰 딸이 학교 국어시간에 자기가 제일 기뻐던 일을 생각하는데 막내 생각 밖에 안나더래요. 막내로 인해서 항상 웃는 일이 생기고 개를 생각하면 기쁘고.... 그래서 딸의 친구들이 너는 동생 얘기를 너무 쓰는거 아니니? 이럴 정도로 그랬다고 하대요.”(딸 둘에 4세 남아를 둔 39세 어머니)

두번째 장점으로서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젊었을 때보다 성숙, 관대해졌다고 느끼며 지해도 생겨서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버리게 된 점을 꼽았다. 젊었을 때 자녀 양육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배운 교훈과 경험을 기초로 해서 이제는 좀더 익숙해지고 현명하게 자녀를 길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제가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아이한테 좀더 관대해지는 것 같아요. 첫 아이 때는 놀아도 규칙을 세워야 할 것 같고 놀면 얼른 치워야 될 것 같고 그랬는데 지금은 놔두고... 그런 관대함이 있죠.”(5세 남아를 둔 41세 어머니)

“저는 큰 애에 비해 애는 뭘 알고 키운다...이게 좋더라구요. 좀 생각이 되고 좀더 이해하게 되고 큰애들은 엄마가 맨날 억압적으로 키워서 이것은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100점만 맞아야 돼 그래서 너무 싫대요. 그렇다고 애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나쁜데 그냥 지가 하고 싶은대로 놔두라고 해요. 큰애들이 막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놔두게 되더라고요. 그게 더 좋은거 아니에요? (웃음) 일등 안 해도 되고 다 잘 안 해도 되고... 유치원에서 뭐 잘못하고 왔어도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할수 있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

런건 많이 너그러워졌죠.”(딸 둘에 5세 남아를 둔 41세 어머니)

“음... 더 안정된 거 같아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아이한테 더 많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 같고 경험에 비춰봐서 하다보니까 첫 아이 때보다도 지도에 실패(?)할 확률이 낮아질 수 있고 아이 친구들이나 엄마들을 알게 되어서 바람직한 정보를 더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너무 귀엽게 키워서 버릇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주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습관적인 면에서 오히려 더 일찍 바람직하게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5세 여아를 둔 39세 어머니)

세번째 장점은 가정의 경제사정이 향상되어서 늦둥이 양육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경제적 측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장점이면서 미래시점에서는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부모의 나이와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가정의 경제 형편이 대체로 안정되어 경제적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또한 늦둥이의 교육과 장래를 생각하면 미래를 위해 경제적으로 대비해 두어야 한다는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저희는 늦둥이를 키우다 보니 이 나이쯤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좋은것 같아요. 주위에 친구들 보면 젊었을 때 기반 잡으면서 애 키우면서 하느라 별로 여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늦둥이를 키우다 보니 웬만한 거는 다 갖추게 되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유가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애한테 꼭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안 줄거 같고...”(5세 외동딸을 둔 42세 어머니)

“조금 경제적으로 넉넉한 부분은 있죠. 근데 애 장래를 위해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36에 애를 낳았으니까 아빠한테 우리도 빨리 재테크를 해야한다, 아빠가 60넘어 70까지 일해야 한다는걸 늘 강조해요 그래서 애가 커가지고 결혼하는 데까지 생각해서 애들 보험 들고 그래요.”(딸 둘을 두고 4세 남아를 둔 40세 어머니)

“애들 장래를 생각해서 경제적으로 준비하는데 막내한테 신경이 더 쓰이죠, 위에 아이들은 결혼할 때를 생각해서 ○○○있잖아요. 그거 한 달에 한 5만원씩 적립해 주는데 애한테는 그걸 똑같이 해주면서 하나를 더하게 되더라고요... 내리사랑이라고

밑에 애는 더하게 되더라고요. 교육보험도 큰 아이 때는 얼마씩 들어가다가 작은 아이때는 단가가 더 커지니까 신랑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 때는 더, 더 드는 거예요. 신랑이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무리하지 마라 하는데... 할 때는 모르는데 하고 나면 막내한테는 더 해주게 되는 거 같아요.” (4세 여아를 둔 44세 어머니)

이 밖에도 늦둥이의 존재로 인한 기쁨 자체를 늦출산의 장점으로 꼽았다. 큰 아이들을 키우면서 긴장되고 조급하고 예민해진 부모의 마음을 늦둥이의 애교로 긴장을 풀어주어서 좋다는 것이다. 늦자녀의 존재 자체가 집안 분위기를 밝고 행복하게 바꾸어 주며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다. 부모 또한 늦둥이를 키우면서 심적으로 젊어진 듯 하고 활력이 넘치게 된다고 한다.

“저희는 애기로 인해서 굉장히 즐겁고 기뻐요. 젊게 생활 할 수 있고 생활에 활력이 있고 그래요. 애로 인해서...” (5세 남아 외동이를 둔 48세 어머니)

“그러니까 저는 인생을 새롭게 산다 할까 젊은 느낌이 들어요 애가 어리니까 그 자체가 너무 귀엽고 같이 있으면 밝아지고 웃음이 많아지고 재롱을 보면서 행복해졌어요 솔직히...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이는 있는 자체가 부모한테 기쁘이고 온 가족의 틀을 유대관계로 묶어 주는 거 같아요. 그 아이가 있음으로 해서 집안에 웃을 일이 있고 가족관계도 향상되는 것 같아요.” (4세 남아를 둔 39세 어머니)

늦부모됨의 단점으로서 부모의 건강과 신체적 활력의 감소, 가족 관계에 있어서 세대차의 심화, 자녀 친구 부모들과의 관계상 어려움, 미래준비의 부담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늦출산과 늦부모됨을 경험한 부모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목이 부모의 건강상태가 더 이상 최고조가 아니며 기력과 신체적 활력이 전과 같지 않다는 점이었다. 20대와 30대 중반 이전에 출산 경험이 있는 부모들은 그 차이를 더욱 실감하고 있으며, 35세 이후 첫 자녀를 노산한 부모들도 한결같이 건강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사실 애가 원하는데도 놀이를 한다던가 밖에 나가서 공 차고 이런거 체력적으로 저나 남편이나 약간 부담을 느껴요. 같이 놀아주고 생활하는데 큰 애 때보다는 약간 힘들어요. 그리고 같이 나가서 놀다가도 내가 힘이 드니까 이제 들어가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딸 둘에 4세 남아를 둔 42세

어머니)

“저희 환경으로 보아서 아이가 꼭 필요해서 낳은 거니까 저희는 그냥 키웠어요. 근데 친구나 동생이 물어보면 낳지 말라고 그래요. 너무 몸이 부대끼고 아프더라고요. 뭐 개개인의 건강상태나 그런 거에 따라서는 좋은 것도 많겠지만... 큰 애 때처럼 업고 매달고 다닐 정도면 그런 말 안 할 거 같은데,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냥 건강하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늦게 낳아서 키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까운 사람한테는 낳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5세 남아를 둔 41세 어머니)

“어려움이라면 애를 키우려면 몸이 좀 힘들구요. 애한테도 늙은 부모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애를 위해서 엄마아빠가 건강에 신경을 써야겠다고 싶어요. 애가 결혼할 때까지는 살아 있을 수 있도록 늘 신경을 쓰고요. 두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노후에 애한테 얽혀 살지 않고 부담을 지우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살 수 있도록 제 자신도 생각을 많이 하죠, 부담 주지 않으려면...” (5세 남아 외동이를 둔 48세 어머니)

두번째 어려움으로서 가족간 세대차를 들었는데 부모와 나이차가 큰 데서 오는 갈등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와 터울이 큰 경우에도 양육상의 어려움은 물론 나이차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늦둥이에 대한 부모의 애정이 지나쳐서 훈육에 어려움을 느끼는가 하면 너무 자신만 위해주는 데 익숙해서 이기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애가 지금은 어리지만 학교 들어가거나 사춘기가 왔을 때 세대차가 문제될 거 같아요. 사춘기 때는 마음의 문을 닫잖아요. 근데 부모 나이가 너무 많으면 마음의 문을 더 닫을 거 같아요. 그러기 전에 아이랑 더 친해져야 될 것 같고 남자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다스려야 되는데 아빠가 나이가 많아서 혹시 꺼려하고 마음의 문을 진짜 완전히 닫아 버릴까봐 그게 제일 걸리더라고요...” (형 둘을 둔 5세 남아의 43세 어머니)

“저는 큰 애와 둘째가 나이 터울이 많은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TV시청도 작은 애는 만화를 보려고 하는데 큰 애는 쇼 프롤라던가 그런 걸 보려고 해서 둘이 갈등도 있고 놀이 차원도 다르고... 둘이 안 맞으니까 작은 아이는 큰 아이하고 놀고 싶어하는데 큰 아이는 귀찮아하고, 그래

서 제가 할 수 없이 작은 아이 편이 되서 같이 놀아줘요. 그러니까 정말 늦둥이를 낳으면 큰 아이한테 스트레스고 작은 아이한테도 스트레스고, 엄마가 자꾸 힘들어요 그거를 중간에서 공백을 메우려니깐..."(5세 남아를 둔 41세 어머니)

세번째 어려움은 다른 부모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늦둥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다른 부모들에 비해 나이가 많고 외모나 신체적 기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친하게 교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작년에 유치원에서 아빠랑 가는 캠프를 했는데 남편이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웃음). 대부분 아빠들이 30대 초반이나 후반이잖아요. 올해는 아빠랑 기차 여행을 갔는데 애랑 둘이서 갔다오니까 너무 좋은데, 가기 전에 아빠가 좀 망설였어요. 그래도 가야지 애를 어떻게 결석시키겠냐고 내가 우겨서 보냈는데 선뜻 내켜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젊은 아빠들과의 세대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늦둥이 낳는거 별로 찬성 안 해요."(4세 남아를 둔 41세 어머니)

"애 친구 엄마 한 두 명 밖에 몰라요. 그 엄마들도(웃으며) 늦둥이 엄마더라고요. 아무래도 젊은 엄마들하고는 잘 친해지지 않는거 같아요..."(5세 남아를 둔 43세 어머니)

"애 친구 부모들하고 인사는 하고 지내요. 길거리에서 만나면 집에 놀러오라고도 하고 애들보고도 놀러오라고 하고.... 그렇게 지내려고 노력은 하죠. 근데 큰 애 때에 비해 어려워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저도 어렵지만 상대방도 어려워하는 거 같더라고요. 말도 조심해서 하는 거 같고."(4세 남아를 둔 42세 어머니)

"큰애들 키울 때는 친구 엄마랑 항상 어울려 다녔어요. 맨날 같이.... 큰 애들은 친구 엄마들도 많이 알고 항상 같이 어울려 다니는 편이었죠. 지금은 아이 친구 엄마들 잘 몰라요. 그건 좀 문제가 있죠..."(5세 남아를 둔 43세 어머니)

"아이 친구의 엄마들하고는 좀 힘들어요.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고 나이들은 삼십대 초반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엄마들하고는 잘 안되요. 애들끼리는 잘 노는데(웃음). 저는 노력하는데 좀 미안해요. 왜냐하면 그 분들하고는 나이차이가 좀

있으니까 어울리려고 안 하는 거 같아요."(5세 남아를 둔 48세 어머니)

끝으로 늦둥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경제적, 교육적 측면에서 자녀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젊은 나이에 출산한 자녀에 비해 늦둥이가 커서 대학 교육, 결혼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늦게 낳았으니까 경제적으로 애 앞으로 뭘 해놓아야지 그런 생각은 항상 하죠. 또 몸이 아프면 요즘은 안 돼, 아들 늦게 낳았는데 아프면 어떡해.... 걱정이 되요.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하고 생각해요."(5세 남아를 둔 43세 어머니)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부모 나이가 좀 있으니까 애 앞으로 보험 같은거 드는 게 많죠..."(5세 여아를 둔 43세 어머니)

이 외에도 늦출산으로 인해 어머니의 활동 영역이 줄어들고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는 점, 맞벌이 부모일 경우 늦둥이에게 충분한 시간과 관심을 쏟지 못하는 점 등이 늦부모됨의 단점으로 꼽혔다.

4. 부모-자녀 관계의 친밀감과 양육 참여도

부모 두 사람과 늦둥이 자녀 관계에서 부모가 지각하는 신체적, 정서적 친밀감은 대체로 매우 높았다. 대다수의 아버지들이(13명 가운데 11명) 늦둥이 자녀와의 친밀감이 매우 높다(1-5점 가운데 5점)고 평가했고 대다수 어머니들 역시(14명 응답자 가운데 12명) 매우 친밀하다고 답했다.

"저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막내를 낳아서 다시 키울때니까 많이 바쁘고 그래요. 근데도 제가 아이를 대하는게 훨씬 더 많아졌다 그럴까. 아이가 뭐를 해도 예쁘고, 남들이 보기에는 막내라서 그런지 아들이어서 그런지 더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막내여서 예쁜 거보다 좀 나이가 들어서 낳은 아이니까 더 이쁘고 가깝죠."(5세 남아를 둔 41세 어머니)

"큰 아이 때보다 애하고 더 가깝죠. 더 많이 안아주게 되고 큰 애들 키울 때는 못 느꼈던 부분이죠. 그래서 더 많이 쳐다보게 되고 웃어주게 되고. 눈도 하루종일 마주치고(웃음)... 애가 엄마 왜 이렇게 쳐다봐? 그래요. 그러면 좋아서 그렇게 말해요.

아빠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애들 키울 때는 너무 바쁘게 생활해서 그런지 너무 나이가 젊고 그래서 그랬는지... 못 느끼던 부분들이 막내를 보면서 느껴진다고 그래요.”(딸 둘에 4세 남아를 둔 42세 어머니)

늦둥이 양육에 대한 부부의 관심과 참여도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 참여가 높은 것은 늦둥이 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에 대해서도 주요 양육 담당자가 어머니인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12명 응답자 가운데 11명이 5점). 그러나 아버지의 경우도 응답자 12명 가운데 9명이 양육 참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저희는 100%예요. 엄마 아빠랑 항상 같이 있고 애 키우는데 관심도 많고... 늘 같이 있어요 애랑.”
5세 남아를 둔 43세 어머니)

“저는 신경을 많이 쓰고는 싶은데 집에서 노는 사람이 아니고 일을 하다보니 좀 소홀했어요. 사실 마음은 많은데 생활환경이 그래서... 아빠는 많이 관여하죠. 이 사람이 딸들 때는 유치원에 안 갔어요. 근데 난 이 사람 이렇게 변할 줄 몰랐지. 안 갈 줄 알았는데 아빠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딸 둘에 4세 남아를 둔 39세 어머니)

5. 늦출산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늦출산이 장단기적으로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 하는지 물었을 때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답이 골고루 섞여 있다 (<표 6>참조). 좋고 나쁜 영향을 떠나 원하던 자녀를 낳아 키울 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기쁘고 좋은 일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자녀의 성공에 대한 압박, 부모와의 나이차, 세대차로 인한 고독의 순으로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답이 나왔다.

반면 면담 항목 가운데 (9번문항) 부모의 연령이 많다는 사실이 경제적인 여유, 정신적 성숙, 성격, 가치관, 대인 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었을 때 대부분의 응답자가 경제적 여유, 정신적 성숙, 성격, 가치관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다. 단지 한 측면 즉 대인 관계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리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서는 앞의 늦부모됨의 단점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 있다.

“경제적 여유는 긍정적 영향이라 봐야죠. 성숙도도 젊은 엄마들에 비해 성숙한 반면 느긋하니까 애한테 다그치는건 없지만 젊은 엄마들보다는 학습 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뒤쳐지는게 아닐까요? 요즘은 하면 한만큼 표가 나는 세상이니깐... 대인관계 면에서는 막내 친구엄마들하고는 그냥 인사정도만 해요. 큰애 위주로 엄마들을 사귀니까 진짜 큰일이예요.” (5세 남아를 둔 43세 주부)

6. 결혼관계의 변화

늦출산이 부부의 결혼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의 결혼이 안정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부관계에 권태기가 없어지고 결속력이 증가했으며 배우자가 가족들에게 전보다 성실해졌다고 대답했다. 심지어 늦둥이의 존재가 없었다면 부부 사이의 대화단절은 물론 이혼의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늦둥이로 인해 부부사이가 소원해진 것은 아니나, 어머니가 자녀와 극히 밀착되어 같은 방을 쓰게 되어 부부가 다른 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애가 있음으로 해서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웃음이 있고요. 애가 없을 때는 거의 대화도 없고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도 애가 없었더라면... 아마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애가 굉장히 중요해요.” (5세 남아 외동이를 둔 48세 어머니)

<표 6> 늦출산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복수응답)

항 목	빈 도
자녀를 원했으므로 그 자체가 좋은 경험	7
자녀의 성공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임	5
부모와 거리가 있어서 자녀가 고독함	5
부모의 사망으로 외로울 수 있음	4
부모 노릇을 더 잘할 수 있음	3
부모의 결혼이 안정됨	2

“애 낳기 전에는 둘이만 잘 살면 되겠지 그랬었어요. 결혼하고 바로 가진 첫 애를 유산했거든요. 그때 남편 말이 뭐 애가 없으면 없는대로 살고, 둘이만 잘 살면 된다고 그랬는데...(웃음). 지금 생각하면 애가 없었으면 둘만 사는게 지겹고 해서 이혼했을 수도 있었겠다 싫어요. 애가 있음으로 해서 싸우면서도 애 때문에 더 독단적인 행동은 못한다 그런게 많이 느껴져요.”(35세에 늦결혼한 43세 어머니)

“저같은 경우에는 애하고 거의 붙어살죠. 아빠는 따로 자고 오직 엄마하고만 붙어 있을 정도로. 딸은 아빠를 좋아하지만 아빠는 여자애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최근에 목욕시키라고 했는데 굉장히 지켜주는 마음은 많아도 손을 잘 못 대더라고요. 그냥 조심스러워 가지고... 그리고 저희는 독특하게 부부가 딴 방을 써요. 애가 제 옆에만 있으려고 해서. 지금까지 남편이랑 같은 방을 못 쓰고, 어찌다가 같이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와요.”(23세 아들과 4세 여아를 둔 44세 어머니)

7. 늦부모됨에 대한 의견과 권장여부

늦출산에 대한 의견으로 부모와 늦둥이 자녀에게 좋을지 나쁠지 의견을 물었다(<표 7>참조). 부모자신에게는 좋다, 무관하다, 나쁘다고 생각한다는 순서로 답했으나 그 차이가 적어서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녀에게는 무관하거나 나쁘다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각 7명과 6명) 좋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2명에 불과해서 종합적 의견은 자녀에게는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 결과는 늦부모됨에 대한 평가가 부모 자신에게는 좋다 나쁘다는 결론을 명확하게 내리기 어려운 문제로 여겨지나 자녀에 대해서는 늦둥이로서 겪을 미래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예상하고 느끼는 안타까운 부모의 심정이 다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가족이나 자녀에게 늦출산을 권할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을 때 응답자 14명 가운데 10명이 권하지 않다고 답해 늦출산이 자녀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는 앞의 응답과

유사한 응답경향을 나타냈다. 그 이유로서는 부모 및 형제-자매 간 나이 차가 많음, 세째 자녀일 경우 부모의 관심부족이나 건강문제, 경제적 부담 등을 들었다. 다음은 늦출산을 권하지 않겠다는 부정적 응답들이다.

“모든 일은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과 출산은 빠를수록 시간, 경제적으로 노후가 여유로울 것 같아요”(5세 남아 외동이를 둔 48세 어머니)

“형제간 나이가 벌어질수록 서로의 대화나 부모의 영향을 벗어났을 때 서로 우애, 의지하는 상황이 큰 다음에는 불편할 수 있을것 같아요, 또 첫 아이가 현재도 약간 그렇게 느끼는데, 동생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지 않나 우려되고요, 막내는 자신이 항상 옳고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자기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 오히려 이기적이고 배타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요.”(5세 여아를 둔 40세 어머니)

“애를 키우느라 엄마 아빠의 삶을 늦게까지 투자해야 하고 나이 차가 많아 거리감을 느낄 수 있지요, 애 역시 다른 친구의 젊은 부모와 자기 부모를 비교해서 느껴지는 감정이 있을 것이고요... 다른 형제와 나이 차이로 인해 지금도 겪는 어려움이 있거든요.”(5세 여아를 둔 43세 어머니)

“글쎄요, 결혼을 늦게 했을 경우에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애는 둘이건 셋이건 고생할 때 한꺼번에 하는게, 나이 터울에 차이 없이 같이 낳아서 키우면 고생을 덜 수 있죠. 낳을거면 한 살이라도 젊어서 낳는게 애한테도 관심도가 낮죠....”(5세 외동딸을 둔 42세 주부)

늦출산을 가족에게 권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은 4명에 불과했는데 그 이유로서 인생의 활력과 부모 결혼의 안정, 인생의 즐거움과 보람 등을 꼽았다.

<표 7> 늦출산에 대한 의견

(n=15)

부모에게	빈도(%)	자녀에게	빈도(%)
좋다	6(40.1)	좋다	2(13.3)
무관하다	5(33.3)	무관하다	7(46.6)
나쁘다	4(26.6)	나쁘다	6(40.1)

“저는 늦둥이로 인해 새로운 활력과 생의 변화를 느껴요. 또 결혼생활이 안정되는 점도 있고요.”(5세 남아 외동이를 둔 48세 주부)

“애를 키우면서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게 새롭기도 하고요. 애를 잘 키우는 것도 자아실현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아이의 존재자체가 즐거움과 보람도 주고요....”(4세 남아를 둔 42세 어머니)

V. 요약 및 결론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인구동향 가운데 만혼현상과 출산 연령의 증가, 저출산 현상 등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출산연령의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늦부모됨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얻기 위해 다양한 측면을 짚어 보았다. 즉 늦출산의 동기, 늦둥이에 대한 부모와 주위의 반응, 장단점, 부모-자녀관계의 친밀감과 양육 참여도, 자녀에 미치는 영향과 늦출산의 권장여부를 조사해 보았다. 연구대상자는 수도권 대도시의 신도시 개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들 가운데 부모 두 사람이 모두 만 35세 이후에 출산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연구방법은 설문지와 심층면담을 병행해서 실시했으며 이 지역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 가운데 늦부모 됨의 여건을 갖추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15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응답자의 대부분은 계획된 임신의 결과로서 늦둥이를 얻었으며 아들을 낳기 위해, 배우자가 원해서 임신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출생순위가 세째인 늦둥이들은 대부분이 남아여서 늦출산의 동기로서 남아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 늦둥이 가운데 외동이 집단과 둘째, 셋째아이로 태어난 아이들과는 부모가 느끼는 자녀의 의미, 감정이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셋째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들은 가족의 반응, 양육의 보람, 친밀감 등이 외동기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이었지만 늦둥이 자녀는 그저 평범한 둘째, 셋째 아이에 불과했지 그 이상 특별한 감정적 반응은 없었다. 그러나 외동으로 늦게 얻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정과 의미는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보였다. 다시 말해 늦둥이 외동이는 부모에게 “특별한” 아이이고 극히 소중한 존재로 느끼고 있었다.
3. 늦출산으로 얻은 자녀를 키우는 장점으로는 가족 분위기가 화목하고 즐거웠으며, 부모가 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느긋하고 관대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늦부모들은 전보다 경제적 여유가 생겼으며 특히 늦둥이 아들을 얻은 부모들은 시집과의 관

계가 편안하고 뒤틀어진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단점으로는 신체적 쇠퇴로 인해 부모역할에 어려움을 느끼며, 다른 젊은 엄마들과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늦둥이들은 부모와의 나이 차, 형제자매와의 나이 차가 큰데서 오는 세대 차와 갈등이 어려움으로 지적되었으며 늦둥이를 위한 미래의 교육과 경제적 준비를 해야 하는데 따르는 부담도 단점으로 꼽혔다.

4. 늦둥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대부분 부모 둘 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자녀와 매우 친밀하며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늦출산이 미치는 영향으로서 자녀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라는 반응이 제일 많았다. 뒤를 이어 고독과 성공에 대한 압박감과 같은 부정적 영향과 부모 노릇을 더 잘 할 수 있어서 좋고 결혼이 안정된다는 긍정적 영향을 꼽았다. 또한 부모의 나이가 많다는 것이 경제적 여유, 정신적 성숙, 성격, 가치관 측면에서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녀 친구 부모들과의 대인관계상의 어려움은 부정적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6. 끝으로 앞에서 말한 장단점을 모두 고려했을 때 늦부모됨이 부모와 자녀에게 좋은지 나쁜지 종합적으로 의견을 물었을 때 부모 자신에게는 좋고 나쁨의 차이가 크게 없으나 자녀에게는 나쁘다는 의견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늦출산을 권장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해서 앞의 종합적 의견과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이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동향 가운데 증가하는 늦출산으로 인한 늦부모됨의 경험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기초연구로서, 늦부모의 범주에 포함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지와 면접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비교적 적은 수의 어머니들이었으나 늦출산의 실태와 영향을 출산동기, 계획여부, 부모의 심정적 반응, 늦둥이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 장단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다수의 늦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양적, 질적 연구를 후속으로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주었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늦부모됨 현상의 실태를 심도있는 개별면접을 통해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늦출산한 어머니들은 대다수가 자녀양육의 보람과 어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으나 늦출산을 권장하지는 않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서 연구 대상자의 수가 적고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 부모들로서 이들의 교육수준, 경제 수준이 비교적 높고 몇몇 유아교육기관의 어머니들 가운데서 연구대상자를 얻었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부모,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들의 경우로 확대해서 적용할 때는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대상 어머니들이 출산한 자녀의 성비가 남아 11 : 여아 4명으로 남아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어머니들은 모두 초혼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대다수가 계획된 임신으로 늦둥이를 낳았다고 보고했다. 이상의 것들을 고려해서 연구 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인구 동향과 연구 결과의 의미를 감안할 때 이 주제에 대한 후속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들은 농어촌을 포함한 다른 지역, 다른 계층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며 또한 어머니 뿐만 아니라 아버지들도 연구대상에 포함시킨다면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늦출산이 계획된 임신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관련 변인들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의 연령도 폭넓게 확대해서 단지 유아기 자녀를 둔 비교적 젊은 늦부모 뿐만 아니라 50대, 60대 늦부모들도 포함시킨다면 늦부모됨에 대한 더욱 폭넓은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 접수일 : 2005년 09월 15일

□ 심사일 : 2005년 09월 28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12월 22일

【참 고 문 헌】

- 강희경(1994).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와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20대 출산모와 고령출산모의 비교.**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미(2002). 늦부모됨에 관한 문헌 고찰. *경기인문논총*, 10, 183-191.
- 임은정(2001). **늦둥이 유아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1979). 인구동태 통계연보. 통계청.
- 통계청(1989). 인구동태 통계연보. 통계청.
- 통계청(2001). 인구동태 통계연보. 통계청.
- 통계청(2004). 인구동태 통계연보. 통계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최근 출산력 및 가족보건 수준의 변화양상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 Belsky, J., Lang, M. E. & Rovine, M.(1985). Stability and change in marria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A second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7, 855-865.
- Birchler, G. R.(1992). Marriage. In V. B. Van Hasselt & M. Hersen(Eds.), *Social development: A lifespan Perspective*(pp.397-419). NY: Plenum Press.
- Cowan, C. P. & Cowan, P. A.(1992). *When partners become parents*. NY: Basic Books.
- Erikson, E. 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Norton & Co.
- Frankel, S. A. & Wise, M. J.(1982). A view of delayed parenting: Some implications of a new trend. *Psychiatry*, 45, 220-225.
- Garrison, M. E., Blalock, L. B., Zarski, J. J. & Merritt, P. B.(1997). Delayed parenthood: An exploratory study of family functioning. *Family Relations*, 46, 281-290.
- Heath, D. T.(1995). The impact of delayed fatherhood and the father-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5, 511-530.
- Levinson, D. J., Darrow, C. M., Klein, E. B., Levinson, M. H. & Mckee, B.(1976). Periods in the adult development of men: Age 18-45. *The Counseling Psychologist*, 6, 21-25.
- Reece, S. M.(1993). Social support and the early maternal experience of primiparas over 35.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21(3), 91-98.
- Roosa, M. W.(1988). The effect of age in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Are delayed child bearers a unique group? *Family Relation*, 37, 322-327.
- Schlesinger, B. & Schlesinger, R.(1989). Postponed parenthood: Trends and issue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20, 355-363.
- Soloway, M. M. & Smith, R. M.(1987). Antecedents of late birth timing decisions of men and women in dual-career marriages. *Family Relations*, 36, 258-262.
- Ventura, S. J.(1993). Delayed childbearing: Trends in the United States. In B. K. Rothman(Ed.), *Encyclopedia of childbearing: Critical perspectives*, pp.95-97
- Walter, C. A.(1986). *The timing of motherhood*. Lexington, MA: Heath.
- Wilkie, J. R.(1981). The trend toward delayed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583-591
- Yarrow, A. L.(1991). *Latecomers: Children of parents over 35*. NY: Free Press.